

## 주일 설교 설교재

**제목 : 당신은 예수님의 양으로 살고 있습니까?**

**본문 : 요한복음 10장 14-42절**

###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

본문은 예수님이 자신을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 영생을 주시는 분, 그리고 아버지와 하나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내십니다.

#### 1. 자기 양을 아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선언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단순히 관리하지 않고, 양의 이름과 형편과 연약함을 인격적으로 아십니다. 양도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를 신뢰하며 따라갑니다.

예수님은 양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상하지 못한 실패가 아니라, 죄인들을 대신하여 자원해서 감당하신 대속의 죽음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릴 권세와 다시 얻을 권세가 있으시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 2. 한 무리와 한 목자

“이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은 주로 이방인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민족과 문화가 달라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인 예수님을 따릅니다. 교회의 참된 일치는 모두가 똑같아지는 데 있지 않고, 한 분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습니다.

#### 3. 예수님을 둘러싼 분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비난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며 예수님의 표적을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의 빛 앞에서는 사람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과 표적을 보고 믿지만, 어떤 사람은 충분한 증거를 보고도 자기 생각을 고집하며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 4. 예수님의 양에게 나타나는 특징

수전절에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그리스도인지 분명히 말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자신의 말씀과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 표적을 통해 정체성을 충분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은 것은 증거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표적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양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 \*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 \* 예수님께 알려진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 \*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아는 데 머물지 않고, 말씀을 듣고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 5. 영생을 주시고 끝까지 지키심

예수님은 자기 양들에게 영생을 주시며 그들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누구도 양들을 예수님의 손과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성도의 구원은 자신의 의지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붙드시는 아버지와 아들의 능력에 근거합니다.

나의 손이 예수님을 얼마나 강하게 붙들고 있는가보다, 예수님의 손이 나를 얼마나 강하게 붙들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고 선언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구별되지만 구원의 뜻과 권세, 신적인 본질과 영광에서 하나이십니다.

## 6.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한 사람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사람이면서 자신을 하나님과 하나라고 선언했다는 이유로 돌로 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평범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었다고 주장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편 82편의 “너희는 신들이라”는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이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를 위임받은 자들에게도 제한적으로 ‘신들’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면,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여 세상에 보내신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모독이 될 수 없다는 논증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믿기 어렵다면 자신이 행한 일을 보고 판단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은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 7. 요한의 증언을 통해 많은 사람이 믿음

예수님은 요단강 건너편, 세례 요한이 처음 사역하던 곳으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요한이 표적을 행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에 관해 증언한 모든 말이 참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사역의 가치는 얼마나 놀라운 일을 보여주었느냐보다, 예수님을 얼마나 참되고 분명하게 증언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 [나눔]

1. 예수님은 “나는 내 양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형편과 상처, 연약함까지 모두 아신다는 사실은 지금 내게 어떤 위로와 도전을 주니까?

2. 예수님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릅니다. 요즘 내 삶의 결정과 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음성은 예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평가와 세상의 기준입니까?

3. 예수님은 양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받은 사랑에 응답하는 믿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를 주님께 드리기 위해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4. 누구도 양을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나를 불안하게 하거나 믿음을 흔드는 것은 무엇이며,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약속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5. 침례 요한은 표적을 행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참되게 증언하여 많은 사람을 믿음으로 인도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가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 내 삶이 달라져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